

스타트업 창업자 필독

스타트업 지분설계 가이드

창업팀 지분 배분 · 스톡옵션 설계 · 투자 라운드별 희석 시나리오
공인회계사·세무사가 정리한 실무 기준

01	지분설계가 왜 중요한가 — 투자자의 시각	3
02	창업팀 지분 배분 기준 및 실무 원칙	4
03	스톡옵션(주식매수선택권) 설계	5
04	투자 라운드별 캡테이블 희석 시나리오	6
05	지분 관련 세무 이슈 핵심 정리	7
06	지분설계 체크리스트	8

지분 구조는 창업 초기 한 번 결정되면 이후 투자·퇴사·상장 시점까지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. 나중에 고치면 세금이 발생하고 투자자 동의가 필요합니다. **처음에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.**

▶ 투자자가 지분 구조에서 확인하는 것

- 창업자 지분이 충분한가 — 시리즈A 이후에도 대표가 50% 이상 유지하는지 (경영 안정성)
- 공동창업자 간 합의가 명확한가 — 분쟁 시 경영 마비 리스크
- 스톡옵션 풀이 확보되어 있는가 — 핵심 인재 영입 가능성
- 불량 지분(Bad Cap)이 없는가 — 의미 없는 소액주주 분산, 퇴사자 지분 방치
- Cliff / Vesting 조건이 있는가 — 창업팀의 장기 헌신 담보 여부

투자자 관점

시드 투자 단계에서 창업자가 이미 30%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, 이후 시리즈A·B에서 추가 희석 시 경영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는 대부분의 VC가 투자를 꺼리는 주요 원인입니다.

▶ 흔한 실수 3가지

- 공동창업자에게 초기 지분 과다 부여 — Vesting 없이 동등 지분 → 기여도 낮은 창업자 퇴사 후 지분 보유
- 스톡옵션 풀 미설정 — 시리즈A 직전에 투자자 요구로 옵션 풀 만들면 창업자 지분이 먼저 희석
- 지분 변경 시 세무 신고 누락 — 저가 양도 시 증여세·양도세 문제, 세무조사 리스크

창업팀 지분은 기여도(Contribution)와 역할(Role)을 기준으로 설계하되, 반드시 Vesting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. 초기 합의 없이 감정으로 동등 분할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.

▶ 지분 배분 시 고려 요소

고려 요소	가중치 기준	실무 포인트
아이디어 기여	10~15%	아이디어 자체보다 실행력이 더 중요. 과대평가 금지
풀타임 헌신	30~40%	파트타임 참여자는 풀타임의 절반 이하로 배분
초기 자본 투입	15~25%	자본 투입은 지분보다 대여금(가수금)으로 처리 선호
핵심 역량·도메인	20~30%	CTO·세일즈 등 대체 불가 역할 프리미엄
네트워크·고객 기여	10~20%	실제 매출·계약으로 검증된 기여에 한정

▶ Vesting 구조 권장안

표준형 4년 / 1년 Cliff		단기형 2년 / 6개월 Cliff	
Cliff (1년)	25% 일시 귀속	Cliff (6개월)	25% 일시 귀속
이후 36개월	월 1/36씩 귀속	이후 18개월	월 1/18씩 귀속
4년 후	100% 귀속 완료	2년 후	100% 귀속 완료
VC·AC 투자 시 가장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구조. 국내 벤처 생태계 표준.		초기 팀 안정화가 급한 경우. 단, 투자자가 기간 연장 요구할 수 있음.	

주의 사항

Vesting은 주주간계약(SHA)에 명시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. 구두 합의만으로는 분쟁 시 강제할 수 없습니다. 공증 불필요하나 창업팀 전원 서명본 보관 필수.

스톡옵션(주식매수선택권) 설계

벤처기업법 특례 스톡옵션은 일반 상법 스톡옵션보다 부여 한도가 높고 세제 혜택이 큼니다. 벤처기업 인증 여부가 핵심 요건입니다.

▶ 상법 vs 벤처기업법 특례 비교

구분	상법 제340조의2	벤처기업법 제16조의3 (특례)
부여 대상	이사·감사·직원	이사·감사·직원 + 외부전문가·협력업체 임직원
발행 한도	발행주식 총수의 10%	발행주식 총수의 50%
행사 조건	부여 후 2년 이상 재직	부여 후 2년 이상 재직 (동일)
세제 혜택	행사 이익 근로소득세 과세	연 5천만 원 한도 비과세 (조특법 제16조의2)
적용 요건	없음	벤처기업 인증 필수
주총 결의	특별결의 (2/3 이상)	특별결의 (동일)

▶ 스톡옵션 풀(Option Pool) 설계 원칙

- 시드 단계: 10~15% 확보 권장 — 핵심 엔지니어·CXO 영입용
- 시리즈A 전: 15~20%로 확대 — 투자자가 투자 전 확대 요구하는 경우 많음 (Pre-money 기준)
- 옵션 풀 확대는 기존 주주 희석 →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
- 행사가액(Strike Price)은 부여 시점 주당 공정가치(FMV)로 설정 — 너무 낮으면 세무 리스크

세무 실무 포인트

벤처기업 특례 스톡옵션 비과세 요건: ① 벤처기업 인증 법인 ②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 ③ 연간 행사 이익 5천만 원 이하. 5천만 원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, 퇴직 후 행사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적용 가능.

▶ 스톡옵션 부여 절차 (벤처기업)

- ①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근거 조항 마련 (설립 시 또는 정관 변경)
- ② 주주총회 특별결의 → 부여 대상자·수량·행사가액·행사기간 결의
- ③ 부여 계약서 작성 및 Vesting 조건 명시
- ④ 등기 (스톡옵션 부여 현황 → 법인등기부 기재)
- ⑤ 세무서 신고 (부여일로부터 1개월 내 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참고)

투자 라운드별 캡테이블 희석 시나리오

아래 시나리오는 창업자 2인(A: 60%, B: 40%)이 설립한 법인이 시드→시리즈A→시리즈B를 거치는 전형적인 희석 구조입니다. 옵션 풀 설정 타이밍에 따라 창업자 지분이 크게 달라집니다.

▶ 단계별 캡테이블 (발행주식 총수 기준)

주주	설립 시	시드 후 (10% 유치)	시리즈A 전 (옵션풀 +10%)	시리즈A 후 (20% 유치)	시리즈B 후 (15% 유치)
창업자 A	60.0%	54.0%	48.6%	38.9%	33.1%
창업자 B	40.0%	36.0%	32.4%	25.9%	22.0%
시드 투자자	—	10.0%	9.0%	7.2%	6.1%
옵션 풀	—	—	10.0%	8.0%	6.8%
시리즈A 투자자	—	—	—	20.0%	17.0%
시리즈B 투자자	—	—	—	—	15.0%
합계	100%	100%	100%	100%	100%

핵심 시사점

시리즈B 이후 창업자 A의 지분은 33.1%로 낮아지지만, 여전히 최대주주로서 경영 주도권을 유지합니다. 만약 시드 단계에서 20% 이상 투자자에게 양도했다면 시리즈A 이후 30% 미만으로 하락해 경영 주도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.

▶ Anti-dilution 조항 — 주의가 필요한 투자 조건

조항 유형	내용	창업자에게 미치는 영향
Full Ratchet	Down Round 시 구 투자자 취득가액 기준으로 전환비율 조정	매우 불리 — 창업자 지분 급격 희석 가능
Weighted Average (광역)	모든 희석 증권 감안 가중평균 행사가 조정	중간 수준 — 국내 투자 계약에서 일반적
Narrow-Based WA	보통주만 감안한 가중평균 조정	투자자에게 다소 유리, 창업자는 상대적으로 완화
Pay-to-Play	다음 라운드 참여 거부 시 우선주 → 보통주 전환	기존 투자자 희석 압박 → 창업자에게 유리

지분 변동은 반드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. 무심코 한 지분 거래가 수천만 원의 추징 원인이 됩니다.

▶ 주요 세무 리스크 시나리오

상황	세무 이슈	관련 세목	대응 방법
공동창업자 퇴사 후 저가 양수	시가 미만 취득 → 증여 의제	증여세 (상증세법 §35)	시가(FMV) 기준 양수도, 세무사 확인
대표가 직원에게 지분 무상 이전	무상 이전 → 수증자 증여세 / 법인 손금불산입 가능	증여세 + 법인세	스톡옵션 활용으로 대체
시가보다 낮은 유상증자 참여	저가 발행 이익 → 기존 주주 증여 의제 (상증세법 §39)	증여세	발행가액 결정 시 세무사 사전 검토
스타트업 주식 양도	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(중소기업: 10%, 일반: 20%)	양도소득세	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
스톡옵션 행사 (일반법인)	행사 이익 전액 근로소득 과세	근로소득세	벤처 인증 후 재발행 고려 (비과세 한도 활용)

▶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

- **원칙:**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 (순자산가치·순손익가치 가중평균)
- **예외:** 비교 가능한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→ 해당 거래가액 우선
- **투자 직전 6개월 내:** 투자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음 (국세청 유권해석)
- 스타트업 초기: 자본금 = 시가인 경우 많으나, 특허·기술가치 있으면 별도 평가 필요

세무조사 주의 포인트

대주주(지분 1% 이상 또는 시가 3억 원 이상 보유자)의 비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세 신고 기한이 2개월로 짧습니다. 신고 누락 시 20%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투자 유치 전후 지분 이동 시 반드시 세무 검토를 받으세요.

▶ 창업 단계별 필수 확인 항목

□ 항목을 인쇄 후 직접 체크하거나, PDF로 저장해 활용하세요.

A. 설립·초기 단계

- 공동창업자 간 지분 비율 서면 합의 (Vesting 포함)
-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 조항 삽입
- 초기 옵션 풀 (10% 이상) 설정 및 주총 결의
- 벤처기업 인증 신청 검토 (창업 후 가능한 빨리)
- 주주간계약(SHA) 체결 — Drag-along, Tag-along, 우선매수권 포함

B. 투자 유치 직전

- 현재 캡테이블 정리 및 투자 후 희석 시뮬레이션 실시
- 옵션 풀 확대 여부 결정 (투자자 요구 사전 협의)
-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검토 (세무사 확인)
- 창업자 지분이 투자 후에도 과반 유지되는지 확인
- Anti-dilution 조항 조건 검토 (Full Ratchet 지양)

C. 임직원 스톡옵션 부여 시

- 벤처기업 인증 상태 확인 (인증 유지 중이어야 특례 적용)
- 주총 특별결의 실시 및 의사록 보관
- 부여 계약서 작성 (행사가액·행사기간·Vesting 조건 명시)
- 등기부 등재 완료
- 행사 이익 예상 및 세금 부담 사전 안내 (임직원 세무 상담)

지금 바로 해야 할 3가지

- 공동창업자가 있다면 오늘 당장 주주간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세요
-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스톡옵션 세제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
- 투자 유치 전 지분 이동이 있었다면 세무사에게 검토를 요청하세요